

허울만의 수사연역, 그 설득력 없음에 관하여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II 24의 한 예를 들어 논함 -

한석환*

- I. 텍스트: 『수사학』 II 24, 1402a2-28
- II. 개연성 기반 논변
- III.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연 개념
- IV. 상당성: 설득력의 기준
- V. 맺음말: 수립되는 진리

〈국문초록〉

변증법에서 (변증법적) 연역과 쟁론적 연역이 나뉘듯,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도 (변증법적) 수사연역과 허울만의 수사연역이 나뉜다. 후자는 그걸 듣는 사람이 ‘잘못 생각하게’ 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만든다. 이 같은 허울만의 수사연역에 동원되는 토포스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수사학』 II. 24장에서 상론한다. 이 글은 텍스트의 맨 마지막에 언급되는 문제의 토포스를 중심으로 허울만의 수사연역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함으로써 그것이 어째서 설득력이 없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 논의는 부수적으로 수사학이 어떤 유의 학인지를 개관하는 데에도 일조한다.

핵심어 : 개연성, 설득력, 오류, 중론, 허울만의 수사연역

* 숭실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결로 보면 영락없는 수사연역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사연역(엔티메마)이 아닌 경우가 있다. ‘허울만의’ 수사연역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 같은 유의 수사연역을 사용하는 건 상대방이 ‘잘못 생각하게’ 하려는 꿩꿩이셈이 있어서다. (논리적) ‘오류’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연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변증법의 서(書)’ 『토피카』 서두에서 ‘명실상부한’ 연역(설로기스모스)과 ‘허울만의’ 연역을 구별하는데,¹⁾ ‘공론장에서 행해지는 스피치’에 접붙여진 ‘또 하나의 변증법’ 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다. 허울만의 연역 혹은 오류 연역이 『토피카』의 IX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소피스트 식 논박』(이하 『소박』으로 약칭함)에서 따로 다뤄지듯, 허울만의 수사연역은 『수사학』 II. 24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수사학』 II. 24장에서 허울만의 수사연역을 다루는 방식은 그 같은 수사연역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발원지에 해당하는 도식, 즉 토포스를 논하는 식이다. 총 열 가지 토포스가 자세히 다뤄지는데,²⁾ 이 글의 관심은 마지막 열 번째 토포스, 이른바 ‘단순하게’와 ‘단순하지 않게’의 구별에 기초한 토포스에 놓여 있다. 문제의 토포스를 논하는 가운데 예시되는

1) 아리스토텔레스는 허울만의 연역을 ‘연역’이라고 칭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지만, 달리 부를 마땅한 이름이 없기에 궁여지책으로 ‘쟁론술적’(에리스티코스) 성격의 연역이라고 칭한다(『토피카』 101a3). 사태나 진상의 파악 또는 규명 같은 것은 뒷전이고, (말)다툼에서 이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에리스티코스) 있대서다. ‘다투기 좋아하는’(에리스티코스) 소피스트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쟁론술(에리스티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 ‘연역의 기술/학’인 변증법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

2) 이것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것이다: C. Rapp,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ung, Einleitung und Kommentar*, 2 Bde. Berlin: Akademie, 2002. 통틀어 아홉 가지로 분류하는 학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G. Kennedy,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C.D.C. Reeve, *Aristotle, Rhetoric*, Indianapolis: Hackett, 2018. ‘동명이의’(호모뉘미아)에 기초한 토포스를 따로 독립시킬 것인지(Rapp), 아니면 ‘언표 형식’(렉시스)에 기초한 토포스에 통합시킬 것인지(Kennedy, Reeve)에 따라 가짓수가 달라진다.

사례가 ‘수사학 고유의 설득력(과 개연성)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표는 문제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토포스에 따라 구축된 수사연역이 어째서 허울뿐인지, 바뀌 말해서 어째서 설득력이 없는지를 해명하는 일이다. 허울만의 수사연역에 설득력이 없음을 드러내 보이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수사학이 도대체 어떤 유의 확인가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나마 그림이 그려진다.

I. 텍스트: 『수사학』 II 24, 1402a2-28

‘허울만의 수사연역을 낳는 토포스’ 중 마지막 ‘열 번째’ 토포스가 이 글의 주된 검토 대상이다. 해당 텍스트를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다:

[T1] 그 밖에도 (1a) **쟁론적 논변**에서 그러하듯, ‘허울만의’ 연역은 단순히 하게 무엇인가를 주장하다가 (금세)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특정의 면에서 (같은 것을) 주장한다. 이를테면 **변증법**에 나오는 논변 ① ‘[무엇]이지 않은 것도 [무엇]인 것이다([무엇]이지 않은 것 역시 [무엇]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와 논변 ②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려진 것이다(알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이다)’가 그렇다.³⁾ (1b) **수사적 논변**에서도 다르지 않아 ‘허울만의’ 수사연역은 ‘단순하게’ 개연적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의 면에서’ 개연적인 데서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다. (다음과 같은) 아가톤의 말도 다르지 않다: “개연적이지 않은 많은 일이 인간에게 일어난다는 것, 바로 이런 것이야말

3) 앞의 논변은 Reeve (2018)의 번역에 따른다: ‘what is not is (for what is not is what is not’. 뒤의 논변은 Rapp (2013, 153)의 번역에 따른다: ‘the unknown is known (for it is known of the unknown that it is unknown)’. 내가 강조함.

로 **개연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반(反)개연적**인 일이라고 해서 일어나지 말한 법이 없거니와, 그러기에 **반개연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개연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이 그러하다면, **개연적**이지 않은 데도 **개연적**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쟁론적 논변**에서처럼 그렇다. ‘어떤 면에서’, ‘무엇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그런지)를 덧붙이지 않아서 거짓 언명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서도[**수사학**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반개연적**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로 그런 게 아니라 특정의 면에서 그렇다. (2a) [온통] 이런 토포스로 이루어진 게 코락스의 기술(교본)이다. [실례:] 어떤 사람(A)이 해당 **혐의에 조응하지 않는다면**—이를테면 **몸이 부실한 사람**이 폭행죄로 기소되었다면—(문제의 토포스가 동일된다). (그가 그랬다는 게) **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B)이 해당 **혐의에 조응하는 경우**—이를테면 **몸이 건장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랬다는 게) **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개연적이지 않은 것**]이 **개연적**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2b)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임의의 한 사람이 혐의에 조응하거나 조응하지 않거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 **개연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쪽은 **개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개연성**은 단순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급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약한 논변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다. 프로타고라스가 발언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역겨워했던 것도 당연하다. 참이 아니라 허울만 **개연적**이어서다. **수사학**과 **쟁론술** 말고 이런 것에 자리를 내주는 기술은 없다.⁴⁾

이 토포스의 핵심은 ‘단순한(하플로스)’과 ‘단순하지 않은’을 구별하는 데에 있다. 변증법과 수사학의 영역에서 범하는 오류들 가운데는 그 둘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도 있다. ‘단순하지 않은’은 문제의 대상을 특정의 면에 한정해서 언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부분적으로

4)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원전은 모두 내가 직접 옮긴다.

들어맞는 말을 마치 전체적으로 들어맞는 것인 양 간주하는 것이다.⁵⁾

(1a) 부분에 나오는 예부터 살펴보자. 변증법적 성격의 논변이지만, ‘허울만’ 그렇기에 ‘쟁론술적’이라고 한다. 서양(고대)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to mē on*’(영어: ‘*what is not*’ 또는 ‘*non-being*’)의 문제이다.⁶⁾ 위의 번역문에는 궁여지책으로 ‘[무엇]’을 넣었으나 실은 괄호로 묶인 부분을 빼고 잃어야 ‘단순한’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난다. ‘*what is not*’을 놓고서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It(=*what is not*) is *what is not*.’ 이를 토대로 개중에는 ‘*what is not is*’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⁷⁾ ‘*what is not*’을 놓고서 ‘*is*’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엇]이지 않은’을 마치 ‘[무엇]인’처럼 잘못 생각하도록 오도하는 결과-논리적 오류-가 빚어진다. 갑론을박을 벌이는 가운데 언급된 ‘*what is not*’(‘*is*’ 앞의)은 특정의 맥락, 즉 문제의 갑론을박 상황에 한정된 의미의 ‘*what is not*’이다. 이같이 한정된 의미의 것을 ‘단순하게’, 그러니까 한정되지 않은 의미로 취하면, 허울(거짓)만 남을 뿐, 고갱이(참)는 간곳없이 사라진다. 그다음에 나오는 “알려지지 않은 것도 알려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 알려졌다기 때문이다”의 예도 마찬가지다. ‘알려지지 않은’의 ‘알려진’과 ‘[그 사실이] 알려졌다’의 ‘알려진’이 서로 다른 맥락에 있기 때문이다. 앞의 ‘알려진’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야말로 ‘단순하게’ ‘알려진’이고 뒤의 ‘알려진’은

5) 이와 관련해서는 『소박』 5, 166b37-167a4도 참조.

6) 한국어로는 여기에 도대체 철학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조차 심히 의심스럽다.

7) 한국어로 글을 쓰면서 굳이 중간에 영어를 노출하는 것은 그리스어(영어)와 한국어가 의미론상으로, 그리고 구문론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다. 무엇보다도 영어의 ‘*be*’ 동사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 ‘에이나이’에는, 영어에서처럼, 서술적 의미와 존재적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 그것이 존재적 의미로 쓰일 때, ‘*to be*’는 ‘*to exist*’로, 의미상의 변화 없이, 고쳐 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표현에 그리스어 ‘에이나이’(영어의 ‘*be*’)에 상응하는 표현이 있는지 적어 의문이다.

특정 맥락에서 얘기된 ‘알려진’이기 때문이다.

변증법에서 빚어지는 오류를 예시한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영역으로 넘어가 개연성에 기초한 수사연역으로 눈을 돌린다. 일반적, 즉 변증법적 의미의 연역이 아니라, 수사적 맥락의 연역이라는 점만 다를 뿐, ‘허울만’의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가 드는 예[(1b)]는 아가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용하는 아가톤에 따르면, ‘개연적이지 않은’ 많은 일이 인간에게 일어나는바, 이를 보고, 그거 보라, ‘개연적이지 않은’ 것도 개연적이지 않으나, 라고 말할 수 있다. ‘개연적이지 않은’ 것도 **개연적**이라는 말이다. 개연적이지 않은데 개연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자가당착의 원인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단순한’과 ‘단순하지 않은’을 구별하지 못한 탓이다. ‘개연적이지 않은’의 ‘개연적’은 단순한 의미의 그것이지만, 그 같은 성격의 일이 벌어지는 걸 가리켜 ‘개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맥락의 언명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당 언명이 나온 특정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바꿔 말해서 거두절미하고 ‘단순하게’ 취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이다).

(1a)와 (1b)의 경우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호 조응하는 예이다. 이에 비해 (2a)와 (2b)의 경우는 수사적 논변에 한정되어 있다. 먼저 코락스가 찢던 논변의 인용이다[(2a)]. 열 번째 ‘단순한’과 ‘단순하지 않은’의 구별에 기초한 토포스가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한 가지 혐의를 놓고 두 인물이 대결한다. 범죄 혐의는 폭력 행사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한다. 혐의자 중 한 사람은 몸이 부실하고 다른 한 사람은 몸이 건장하다. 먼저 약골이 기소된 경우,⁸⁾ 문제의 토포스를 끌어다 댈다. 몸도 부실한 사람이 어떻게 기골이 장대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8) ‘약골’은 작년 연말 유명을 달리하신 천병희 선생의 표현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파주: 숲 2017.

행사했겠느냐고 반문한다. 약골이 장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장사가 혐의자로 몰리더라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문제의 토포스에 의지한다. 내 체격을 보라. 누가 보더라도 힘이 장사로 보이는데, 폭력 사건이 벌어지면 빼도 박도 못하고 뒤집어쓰지 않겠는가. 그런 터에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한 무모한 짓을 할 위인이 어땠겠느냐고 항변한다. 장사가 약골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저런 식으로 둘러대면) ‘개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그 때문에 역시 문제의 토포스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약골과 장사의 주장 모두 그럴법하다. 세간에 ‘약한’ 논변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이 도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프로타고라스[(2b)]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소환된다. 그러나 프로타고라스의 어떤 발언을 듣고 사람들이 역겨워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참이 아니라 허울만 개연적이어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다.

II. 개연성 기반 논변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코락스의 논변[(2a)]에 상응하는 논변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편에도 나온다. 특기할만한 점은 문제의 논변이 거기서는 티시아스의 교본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T2] (티시아스의) 기록에 따르면, ‘약골이긴 해도 담력 있는’ 한 남자가 ‘힘센 겁보’를 두들겨 패고, 걸옷이나 다른 어떤 소지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경우 양측 모두 진실(*talēthes*)을 말해서는 안 된다. ‘겁보’는 자신을 두들겨 팬 건 저 ‘담력 있는’ 남자 단독 범행이 아

니라고 말해야 하고, 다른 이(약골)는 자신들 둘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한편, 잘 알려진 논변을 동원해야 한다. “나처럼 왜소한 남자가 어떻게 저이 같은 (기골이 장대한) 남자를 감히 두들겨 뺨 수 있었겠는가?”라고 말이다. (273b-c)

문제의 수사 교본을 집필한 이가 코락스(아리스토텔레스)인가, 티시아스(플라톤)인가는 여전히 논쟁거리이다. 두 사람의 관계도 미결이긴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는 티시아스가 코락스의 제자로 여겨지는데, 그런 관계라면 티시아스가 선생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남겼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인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까마귀’를 의미하는 ‘코락스’는 티시아스의 별칭일 뿐이라는 것이다.⁹⁾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용과 플라톤의 인용에 차이가 없지 않지만, 그 둘의 출처는 같아 보인다. 두 버전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약골’의 논변이다. 그의 논변은 범행에 잘 어울리는 수단—그의 경우 신체적 건장함—이 자신에게 갖춰져 있지 않다는 데에 기초해 있다. 일반 상식에 호소하는 전형적인 수(사)법이다. 일상의 경험에 비추어 전제조건에 해당

9) T. Cole, “Who was Corax?”, *Illinois Classical Studies* 16 (1991), pp. 65-84 참조.

섹스투스 엠피리쿠스(*Adversus mathematicos* 2, 96-99)가 전하는 야사에 따르면, 한번은 코락스가 제자 티시아스와 가르침의 대가를 주고받기로 합의했다. 조건은 티시아스가 재판에서 처음 승소할 때 지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티시아스는 시간을 질질 끌었다. 보다 못한 코락스가 그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정에서 코락스는 논변을 폈다. 티시아스는 어떤 사정에서든 수업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판에서 패소하면 수업료를 내라는 선고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이고, 승소하면, 승소한 첫 재판일 것이므로 그렇다는 것이다. 순순히 물러설 티시아스였다면 그런 자리에 서지도 않았을 터. 이미 경지에 오른 티시아스는 받아친다. 승소하면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므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고, 패소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승소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시칠리아의 재판관들은 두 사람이 부리는 논리의 곡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두 사람을 내쫓으며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내뱉는다. “못된 까마귀의 못된 알이라니!” (*ek kakou korakos kakon ō[i]on*). 그리스어 표현 ‘*korax*’(까마귀), ‘*kakos*’(나쁜, 못된), ‘*ō[i]on*’(알)으로 말놀이한 것이다.

하는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 어떤 행동도 ‘합리적으로’ 시도되지 않기 때문이다.¹⁰⁾ 요컨대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폭력 행사는 있을 법하지 않다, 개연적이지 않다, 는 것이다. 이처럼 개연성에 기초하여 논변을 펴기에 통상 ‘개연성 기반 논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장사’의 경우는 어떤가. 그의 논변 역시 ‘약골’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폭력 행사가 개연적이지 않다고 항변한다. 그 이유는 ‘약골’과 반대다. 즉 범인으로 몰릴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유는 반대지만 이 역시 ‘약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식에 기초해 있다. 혐의를 받지 않거나 들키지 않고, 현장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으로’ 품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상식 말이다.¹¹⁾ 이는 개연성 기반의 논변이 얼마나 쉽게 이쪽저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말하자면 순방향으로 정주행할 수도 있지만 **맘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역주행할 수도 있다.¹²⁾ 이런 특질에 주목하여 마이클 거가린은 ‘장사’ 식 논변에 ‘역(발상) 개연성 논변’이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¹³⁾ 방향만 다를 뿐 개연적이라는 데서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 개연적이란 무엇인가. 예의 약골과 장사의 항변에서 보듯 우리

10) M. Kraus, “Early Greek Probability Arguments and Common Ground in Dissensus”, in: Hans V. Hansen, Christopher W. Tindale, J. Anthony Blair, Ralph H. Johnson, David M. Godden (Eds.), *Dissensus and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OSSA Conference Archive*. 92 (2007), p. 3.

11) Kraus (2007), p. 3.

12) 수사기술의 오용은 ‘의지적 선택’(프로하이레시스)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참조: 한석환,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도 수사학의 소관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설득력 있는’ 것의 인식적 지위”,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50집 (2021), 15.

13) M. Gagarin, “The nature of proofs in Antiphon”, *Classical Philology* 85 (1990), p. 30: “the reverse argument from *eikos*”; “Probability and persuasion: Plato and early Greek rhetoric”, in: I. Worthington (Ed.), *Persuasion: Greek Rhetoric in A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94, p. 51: “the ‘reverse probability’ argument”.

의 일상 경험에 기초한 상식-보편적 앎-과 부합하느냐가 개연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척도이다. 그렇더라도 개연성의 정도에서는 차이가 난다. 아무래도 역발상 개연성 논변의 설득력이 순방향 개연성 논변의 그것보다 약하다.

코락스와 티시아스가 개연성 기반의 논변을 논한 건 대체로 기원전 5세기 중엽 무렵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개연성 기반 논변을 편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기록상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예는 호메로스의 『헤르메스 찬가』(261-371)에 나온다.¹⁴⁾ 거기서 헤르메스는 준사법적 설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논한다. 제우스의 씨를 받아 신들 가운데서 ‘기린아’로 꿈꿨던 헤르메스는 ‘언변이 좋아’ 나중에 신들의 사절이 되기도 한다. 동틀 무렵 태어난 그는 이미 정오에 튀라라 불리는 현악기를 제작한다. 죽은 거북의 등과 내장 일곱 가닥으로 만들었다. 밤에는 이복형 아폴론의 소 떼를 훔친다. 소 떼의 흔적과 자신의 발자취를 감쪽같이 지워 남기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완전 범죄같이 보였지만 그 정도의 계락을 눈치채지 못할 아폴론이 아니다. 그는 헤르메스의 거처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한다. 그러나 예의 갓 난쟁이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요량으로 기저귀에 파묻힌 채 흔들거리는 요람용 그물침대에 드러누워 있다. 아폴론도 지지 않고 애송이 범죄자를 협박도 하고 으르기도 하면서 훔쳐 간 장물을 돌려받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그 절도 혐의자는 범죄행위를 할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게 치밀하게 계산된 말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14) 저작 연대는 불확실하나, 거의 모든 학자가 450년 이전, 500년 무렵의 작품으로 간주한다. R. Janko, *Homer, Hesiod and the Hym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 140-43 참조.

[T3] 레토의 아들(=아폴론)이여, 무슨 소립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까.
들판에서 뛰놀 당신의 소 떼를 어떻게 여기 와서 찾는 겁니까.
나는 보지도 못하였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얻어들은 바도 없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포상이라도 받을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소 떼를 몰 정도로 힘이 센 장부도 아닙니다.
다른 걸 맘속에 품는다는 것도 나에게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의 관심사라곤 그저 잠자는 것, 어머니 젖 먹는 것,
어깨를 감싼 채 채워주는 기저귀 차는 일, 온욕하는 일, 이런 것이 전부
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티격태격에 관해 알아차린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신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일 터이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쟁이가 들판의 소 떼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게 했다면 말
입니다.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태어난 내 발가락은 부드럽고, 땅은 거칠고, ... (261-273)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용에 나오는 ‘약골’의 항변의 판박이다. 그저 갓난
쟁이일 뿐인 자신이 무슨 수로 소 떼를 흠쳤겠느냐는 게 항변의 요지다.
소도둑 ‘갈지 않기에’ 아폴론의 소 떼를 흠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연성 기반의 논변은 알려진 지 오래되었고 사용된 지도 오래
되었다. 비극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개연성 기반의 논변은 아마도 에우
리피데스의 소실된 작품 『크레타섬 사람들』에 나오는 파시파에의 스피치
일 텐데, 430년대의 작품으로 추정된다.¹⁵⁾ 헤로도토스 역시 개연성 기반
의 논변을 즐겨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¹⁶⁾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논변

을 코락스/티시아스가 창안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른바 역발상 개연성 논변의 저작권만큼은 저들 소유의 것임이 확실해 보인다.

코락스/티시아스의 이름을 단 채 전해지는 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약골과 장사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이다. 약골이 내놓는 ‘약골인 자신이 장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있을 법하지 않다’라는 논변은 일반적인 예상과 잘 합치한다. 이에 상대편은 ‘역발상’으로 응수한다. 힘이 장사같이 생긴 자신이 약한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일 먼저 용의선상에 오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 멀쩡한 정신의 소유자라고 할진대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역시 일반적인 믿음에 호소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 하나는 약한 사람과 힘센 사람 모두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힘센 남자는 자신이 ‘겉보’라는 점을 감추고 있고, 약한 사람은 자신이 ‘담력 있는’ 사람임을 감추고 있다(헤르메스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인용문 [T2]의 티시아스의 주장에 따르면 “양측 모두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 개연성 기반 논변이 일상의 경험에 기초한 상식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구리거나’ 취약하다 싶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도 있다. 수사학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측면임이 분명하다.¹⁷⁾

15) G. Goebel, *Early Greek Rhetorical Theory and Practice: Proof and Arrangement in the Speeches of Antiphon and Euripides*. Phil. Dis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3, pp. 290-301 참조.

16) 일레로 『역사』 3. 38. 2 참조.

17) 그러나 그게 정말 부정적이기만 하나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 물음이다. 아래 ‘맺음 말’ 참조.

III. 아리스토텔레스의 개연 개념

위에서 개연적이란 일상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껏 사용한 ‘개연(성)’은 영어 ‘probable/probability’의 역어이고, 문제의 영어 표현은 다시금 그리스어 표현 ‘에이코스’의 번역어이다. 그러나 근래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에이코스(하다)’라는 게 통상적인 믿음과 잘 ‘맞아떨어지는’ 걸 의미하므로, ‘appropriate’, ‘fitting’, ‘suitable’, ‘proper’ 같은 표현으로 대체하는 게 맞다.¹⁸⁾ ‘프라버벌/프라버빌리티’에 ‘확률(적)’의 의미도 있어 ‘에이코스(하다)’가 마치 수량화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한국어로는 ‘확률(적)’(수학적 과학들에서)과 ‘개연(성)’(철학에서)이 두루 쓰이지만, 이 역시 ‘에이코스’의 의미를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생경하지만 ‘상당하다/상당성’이라는 표현에 나는 많이 기울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고집하지는 않겠고, 문맥에 따라 ‘딱 들어맞는다’, ‘제격이다’ 같은 표현도 함께 쓰도록 하겠다.

그러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로 돌아가자. 그는 ‘에이코스’로써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 그의 경우, 에이코스(개연적이다, 상당하다)는 ‘피타논’(설득력 있다), ‘엔독손’(일반에게 인정된)과 개념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¹⁹⁾ 피타논을 그는 이따금 에이코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1400a5-14 참조). 엔독손과도 마찬가지로(1356b26-33 참조). 수사학이 설득의 물음과 관련된 기술/학이라는 점에서, 『수사학』

18) Kraus (2006), p. 133; (2007), p. 6 등 참조. 같은 경향을 보여주는 유사한 다른 연구에 대한 정보도 거기서 얻을 수 있다.

1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참조: J. Allen, “Aristotle on the value of ‘probability’, persuasiveness, and verisimilitude in rhetorical argument”, in: V. Wohl (Ed.), *Probabilities, Hypotheticals, and Counterfactuals in Ancient Greek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47-64.

의 이곳저곳에 ‘피타논’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수사학을 학적으로 정초하는 일이 최대 관심사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의 학적 과제를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주어진 사안에서 그 안에 뿌리박고 있는 ‘설득력 있는’ 요소(피타나: ‘피타논’의 복수형)를 포착해 내는 일이라고 규정한다(1355b10-11). 한 사안의 ‘설득력 있는’ 요소(피타논)는 설득의 과정(피스티스)을 통해 청자에게 전달된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티스’는 ‘설득수단’이기도 하다. 한편 설득은 증명(아포데익시스)의 일종이다. 어떤 사안인가를 두고서 증명되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 확신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1355a5-6). 변증법의 영역에 ‘아포데익시스’(증명)가 있다면 수사의 영역에는 ‘설득’(피스티스)이 있다(이런 의미에서 ‘피스티스’는 ‘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한쪽에서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설득되었다고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이처럼 양자가 서로 조응하는 관계에 있다. “수사학은 변증법의 ‘맞상대(안티스트로포스, counterpart)’”(1354a1)라는 규정이 나온 배경이다. 그의 수사학에 달리 ‘변증법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게 아니다.

주어진 사안(프라그마)에서 발굴해낸 ‘설득력 있는 요소’는 ‘설득의 과정’을 통해, 바꿔 말해서 ‘설득수단’에 실려, 청자에게 전달된다. 설득수단은 크게 둘로 나뉜다. 기술적인 것과 몰기술적인 것이 그것이다. 몰기술적 설득수단이란 수사기술을 통해 마련된 것이 아니고 설득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가리킨다. 증인이라든가, 계약, 문초(해서 얻어낸 증언), 법률, 선서 등이 그에 속한다. 기술적 설득수단이란 수사기술의 힘을 빌려 연설자가 연설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으로서, 통칭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그에 속한다. 에토스란 연설자가,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연설을 통해 청자에게 각인시키는 일이고, 파토스는 연설자가 청자의 마음이라는 ‘밭을 갈아’ ‘씨 뿌릴’ 채

비를 차리는 일이고, 로고스는 연설(로고스)에 담긴 논변(로고스)을 가리킨다. 일각에서는 설득수단이라고 하면 로고스만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나,²⁰⁾ 이것은 오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I. 2장에서 위 셋을, 오해의 여지 없이, 기술적 설득수단으로 열거한다(1356a1-20). 연설(로고스)이, 연설에 담긴 논변(로고스)이 중추를 이룰 수밖에 없을 뿐이다. 연설자의 ‘성품/사람됨’을 표출하든 청자의 ‘감정’을 환기하든 ‘연설을 통해’ 이뤄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사기술이 요청되는 대목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연역, 곧 엔튀메마를 지칭하여 ‘설득의 몸통’(1354a15)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사정에서다.

한편 증명(아포데익시스)은 연역(설로기스모스)의 일종이다. 변증법 전문가는, 그러기에, 온갖 종류의 연역을 전문적으로 탐구한다(1355a8-10). 그게 그의 일이다. 그가 허울만의 연역, 즉 ‘쟁론적’ 연역까지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수사학의 ‘증명’은 ‘엔튀메마’이다. 엔튀메마는, 그러기에, 수사(학적 의미의) 연역(아포데익시스 레토리케)이다. (변증법적이지 않은) 쟁론적 연역이 변증법 전문가의 관할하에 있듯이, 수사연역을 다루는 수사학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의 작업 반경에는 ‘진성/명실상부한’ 수사연역뿐만 아니라, ‘허울만의’ 수사연역도 포함된다. 이 같은 변증법과 수사학의 평행관계는 여러 면에서 확인되는데, 양자 모두 ‘엔독사’(중론)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그 가운데 하나다.²¹⁾ 이 같은 엔독사와 관련된 논증 도식이 토포스이거니와, 토포스에도 변증법적인 것과 수사적인 것이 있다.

20) 대표적인 예는 Kennedy (2007)이다.

21) ‘엔독사’는 통상 ‘통념’으로 번역되나, 앞으로는 ‘중론’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겠다. 원래의 의미를 더 잘 재현하기 때문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위해서는 다음 참조: 한석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기술적 설득수단은 말 그대로 물기술적인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문화』 제49집 (2023), 17-38.

수사학에서 말하는 증명 곧 설득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상의 개요에 기초해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나온다: 연설자는 ‘일반에게 인정된’ 의견, 즉 ‘중론’에 기초하여 논변을 편다. 왜 중론을 끌어들이는가. 소기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바꿔 말하면 연설자가 내세우는 모종의 주장(B)을 청자가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도에서다. 연설자가 내세우는 주장(B)은 특정되어 있다. 특정의 결론에 도달하려면 출발점도 문제의 특수 상황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수사기술을 연마한 연설자는 ‘중론’을 기초로 청자(그룹)에 의해 이미 승인된 문장(A)을 수사연역의 전제로 삼는다. 전제(A)에서 결론(B)의 도출은 연역적일 수도 있고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명제 A를 확신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설사 부수적인 조건이 추가되더라도, 일단 명제 A와 명제 B 사이에 연역적 연결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알고 있는 한, 명제 B를 받아들인다(정상적인 경우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수사연역의 구조인데, 이 같은 수사연역은 여신/수신이라는 신용에 기초한 금융거래와 닮은 점이 많다. 현대 사회에서 카드의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상품 구매는 물론 세금 납부에서 시작하여, 심지어 축의금과 부의의 전달에 이르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다. ‘마스터·키’라도 되는 양 이렇게 다용도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카드에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자-상품판매자-카드회사-은행-예금자(카드 사용자)’로 이어지는 여신/수신의 연쇄가 없다면 신용카드를 통한 금융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다.²²⁾

수사연역에서 중론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설득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설득의 담보를 잡는 것이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사태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기도 한다: 수사연역은 에이코스(개연성/

22) 한석환, 『감정의 귀환』,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2, 281쪽 주 23 참조.

상당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1357a32: *ex eikotōn*).²³⁾ 에이코스란 무엇인가. 그의 규정에 따르면, 에이코스는 (가)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ta endechomena allōs echein*)과 관련하여 (나) ‘대체로 또는 큰 틀에서’ 들어맞는 것([*to*] *hōs epi to polu*)이다(1357a34-b1; 『분석론전서』 70a3-6).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가)]란 ‘항상 똑같은 양태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서 ‘필연적이지 않은’ 것이다. 항상 똑같은 양태를 취하는 건 자연의 세계다. 춘분, 입춘, 하지, 동지, 계절의 순환은 한결같다. 중력 등 자연의 법칙도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반면 인간 세계는 변화무쌍하고 변수투성이다. 그렇다고 우연으로 가득 찬 세계도 아니다. 불변적이지도 않지만 우연적이지도 않다. 정확히 정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규칙성이 없진 않다. 대체로, 큰 틀에서 들어맞는 규칙성이다[(나)]. ‘내부나 외부의 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두고서 에이코스(하다)라고 하는 것이다.²⁴⁾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에이코스를 ‘개연적’이라고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이 에이코스에게 결정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이코스는 그가 엔독사(중론)라 부르는 것, 즉 일반에게 인정된 의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가 『토피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엔독사는 “(a) 모든 사람이 바르다고 간주하는 의견, 또는 (b) 사람들 대부분이 바르다고 간주하는 의견, 또는 (c) 지혜로운 사람들이 바르다고 간주하는 의견,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c₁) 모든 이가, 또는 (c₂) 그 대부분이, 또는 (c₃) 가장 널리 알려진, 가장 많은 정도로 알려진 사람들이 바르다고 간주하는 의견이다”(100b21-23). ‘필연적으로

23) 수사연역의 다른 한 출발점은 표지이다(1357a31-32: *ek sēmeiōn*).

24) M. Winter, “Aristotle, *hōs epi to polu* relations, and a demonstrative science of ethics”, *Phronesis* 42 (1997), pp. 163-189.

참인’ 것과 이렇게 다르다. 에이코스(하다)란, 결국, 언독사, 곧 중론과 부합하는 걸 의미한다. ‘중론과 부합하는’ 걸 두고서 에이코스(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이코스(하다)는 ‘개연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상당하다/상당성이 있다’고 하는 편이 더 낫다고 본다.

에이코스에 기초한 수사연역은, 그렇다면, 중국에는, 청중이 그렇게 생각한대거나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바에 기초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에이코스 기반 수사연역은 청자 지향적이다. 청자의 수용 여력이 주된 고려 요소에 속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보편적’ 또는 ‘전칭’ 성격의 전제에서 출발하여, 특정의 사건과 관련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이코스 기반 수사연역이다.

IV. 상당성: 설득력의 기준

그러면 이제, 이 글의 출발선상에서 물었던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에이코스 기반 수사연역이라고 하더라도 명실상부하게 그런 ‘진성’이 있고 ‘허울만’ 그런 가짜, 즉 설득력이 없는 것이 있다.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인용문 [T1]의 (1b)에 따르면 ‘허울만의’ 수사연역은 [‘단순하게’ 에이코스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특정의 면에서(*ti*) 에이코스한 것에서] 나온다. 그러나 이런 식의 에이코스는 보편적이지 않다. 요컨대 아무리 에이코스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어야지, 특수한 의미에서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수의 측면에서 에이코스한 것은 ‘큰 틀에서’ 들어맞음이라는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허울만의 수사연역이 ‘허울만

의’ 수사연역인 이유는 그 같은 에이코스 규칙을 위반하기 때문이다.²⁵⁾

위에서 보았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에 따르면, 에이코스는 (가) ‘다른 식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나) ‘대체로 또는 큰 틀에서’ 들어맞는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큰 틀에서’[(나)]는 코락스의 예를 들어 말하면 ‘약골’의 에이코스와 ‘장사’의 에이코스 가운데서 전자가 적격임을 확인한다. ‘큰 틀에서’의 규정은 여러 에이코스 중 어느 것이 우세한가의 판별 기준이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장사’의 역발상 에이코스 논변은 ‘약골’의 정주행 에이코스 논변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둘을 놓고 보았을 때 역발상 에이코스 논변은 청자에게 수용되기 어렵다. 상당성에서 열세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큰 틀에서’ 들어맞는 규칙성은 ‘내부나 외부의 간섭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 (거의) 없다. 별별 해괴망측한 일도 많다.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당성이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가능성(뒤나미스)은 사실성 또는 현실성의 꿈꾸니를 늘 따라다닌다. 그러나 상당성(에이코스)은 그렇지 않다. ‘상당성이 없는’ 진리를 말할 수도 있고, ‘진리가 아닌’ 혹은 ‘진실성이 없는’ 상당성을 말할 수도 있다.²⁶⁾

25) Kraus (2006), p. 147.

26) G. Kloss, “Möglichkeit und Wahrscheinlichkeit im 9. Kapitel der aristotelischen *Poetik*”, *Rheinisches Museum* 146 (2003), pp. 160-183 참조.

V. 맺음말: 수립되는 진리

에이코스 논변은 코락스/티시아스 이전에도 있었다. 그들이 처음 알았던 게 아니다. 그러나 판을 뒤집는 ‘역발상’ 에이코스 논변은 그들 원작이다. 에이코스 논변은 코락스/티시아스 이후로도 철학을 비롯하여 역사, 의학 등 여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 안티폰 등 소피스트들이 즐겨 구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세노파네스, 파르메니데스, 플라톤에게서도 ‘에이코스’의, 유사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알렉산더 수사학』의 지은이로 보이는) 아낙시메네스도 그러하거니와,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예외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코스의 기초 위에 수사학의 집을 짓는다. 그러나 그는 역발상 에이코스 논변에는 선을 긋는다. 정주행의 에이코스 논변만 설득력 있는 것으로 수용한다. 그것만이 ‘큰 틀에서’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의 경우, 설득력의 원천은 상당성(에이코스)이다. ‘다른 양태로 존립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에서일지라도 그는 가능한 한 큰 틀에서 부합하는 쪽에 ‘일리 있는’ 요소, ‘이치에 닿는’ 요소가 더 많다고 본다. 그쪽에 합리성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설득력은 상당성으로 통하고, 상당성은 합리성으로 이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코스라는 전통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걸 맹종하지는 않는다. 에이코스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변용함으로써 수사학의 학적 ‘부가가치’를 높인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사학을 난공불락의 기술/학으로 정립함으로써 웬만한 공격에는 미동도 하지 않게 만들었다.

인용문 [T2]의 티시아스에 따르면 ‘힘센 겁보’와 ‘담력 있는 약골’ 모두 진실(truth)을 말해서는 안 된다.²⁷⁾ 에이코스(상당성) 기반의 논변이

27)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는 에이코스(상당성) 기반 논변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역시 준

엔독사(중론)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연설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성향도 있다. 수사학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드는 측면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에이코스 기반의 논변이 다뤄진 맥락이 하나같이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설정이라는 점이다. 실천(프락시스)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진리 인식이 그 목표인 이론(테오리아)의 그것과 확연히 다르다. 특정 혐의를 놓고 법정에서 다툰 때 피고의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기소자에게 있다. 현행 형법을 보더라도 피고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은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론적’ 진위의 물음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은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생선이 퍼덕이듯 생기가 넘치는 실천 영역의 수사(레토릭)에, 핏기 없는, 무색무취한 진리의 추구가 그 목표인 이론의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처사다.²⁸⁾ 인간의 삶이 그 주된 관심사인 수사에서 운위되는 ‘진리’(또는 진실)는 이론적 인식의 대상인 ‘진리’와 표현은 같지만, 그 내포와 도달 방법은 다르다. 수사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찾듯 발견하는 대상이 아니다. 발견이란 모종의 방식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을 전제하지만, 수사에서는 착수 시점에 이미 정해진 답 같은 것이 없다. 수사를 통해 비로소 답을 만들어내야 한다. 법정에서 내려지는 평결과 선고가 그런 유의 ‘진리’이다. 수사적 의미의 진리는 수사 활동을 통해 비로소 수립된다.

수사학은 필연성과 규칙성이 그 생명인 이론의 물음이 아니다. 그렇다고 럭비공 튀듯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발생하는 우연사를 대상으로 삼지

사법적 설정 속의 헤르메스 역시 마찬가지다. 자신에게 (법적) 이익이 안 되는 진술은 의도적으로 피한다.

28) 플라톤이 『파이드로스』편에서 진실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티시아스의 말을 인용하는데, 내가 보기에 거기서 그의 관심은 순전히 ‘수사적인’ 티시아스와 달리 ‘인식적인’ 성격의 것이다.

도 않는다. 큰 틀에서 규칙성을 보이는, 흠투성이의 인간들이 시행착오를 범해가며 일구어 나가는, ‘다른 양태로도 얼마든지 존립할 수 있는’ 일들을 놓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갑론을박을 벌이는 게 수사다. 인간이 인간사를 놓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걸 다루는 학, 그것이 곧 수사학이다. 지극히 인간적인 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라는 종이 이 세계에 발을 붙이고 삶을 꾸려가는 한, 수사학은 ‘멸종’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파주: 숲, 2017.
- 한석환, “설득력 있어 보일 뿐인 것도 수사학의 소관사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나오는 ‘설득력 있는’ 것의 인식적 지위”. 『인문학연구』 제50집,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7-29쪽.
- _____, 『감정의 귀환: 아리스토텔레스 감정론 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2.
- _____, “아리스토텔레스의 물기술적 설득수단은 말 그대로 물기술적인가?”. 『철학과 문화』 제4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문화연구소, 2023, 17-38쪽.
- Allen, J., “Aristotle on the value of ‘probability’, persuasiveness, and verisimilitude in rhetorical argument”, in: V. Wohl (Ed.), *Probabilities, Hypotheticals, and Counterfactuals in Ancient Greek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 47-64.
- Bett, R., *Sextus Empiricus: Against Those in the Discipli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 Bekker, I., *Aristotelis Opera*, 2 Bde. Berlin: Reimer, 1831. Reprint, 1970.
- _____, *Sextus Empiricus*. Berlin: Reimer 1842. Reprint: De Gruyter 2022.
- Burnet, J., *Platonis Opera*, 5 vo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00-1907.
- Cole, T., “Who was Corax?”, *Illinois Classical Studies*, Vol. 16, 1991, 65-84.
- Gagarin, M., “The nature of proofs in Antiphon”, *Classical Philology*, Vol. 85, 1990, pp. 22-32.
- _____, “Probability and persuasion: Plato and early Greek rhetoric”, in: I. Worthington (Ed.), *Persuasion: Greek Rhetoric in Ac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94, pp. 46-68.
- Goebel, G., *Early Greek Rhetorical Theory and Practice: Proof and Arrangement in the Speeches of Antiphon and Euripides*. Phil. Diss.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1983.

- Janko, R., *Homer, Hesiod and the Hym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Kassel, R., *Aristotelis Ars Rhetorica*. Berlin: De Gruyter 1976.
- Kennedy, G.,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 Kloss, G., “Möglichkeit und Wahrscheinlichkeit im 9. Kapitel der aristotelischen *Poetik*”, *Rheinisches Museum*, Vol. 146, 2003, pp. 160-183.
- Kraus, M., “Nothing To Do With Truth? *Eikos* in Early Greek Rhetoric and Philosophy”, in: Lucia Calboli Montefusco (Ed.), *Papers on Rhetoric VII*, Roma: Herder Editrice, 2006, pp. 129-150.
- _____, “Early Greek Probability Arguments and Common Ground in Dissensus”, in: Hans V. Hansen, et al. (Eds.), *Dissensus and the Search for Common Ground*, CD-ROM, Windsor, Ontario: OSSA 2007.
- Rapp, C., *Aristoteles, Rhetorik: Übersetzung, Einleitung und Kommentar*. Berlin: Akademie 2002.
- _____, “Fallacious Arguments in Aristotle’s *Rhetoric* II.24”, in: *Logical Analysis and History of Philosophy*, Vol. 15, 2013, pp. 122-158.
- Reeve, C.D.C., *Aristotle, Rhetoric*. Indianapolis: Hackett 2018.
- Ross, W.D., *Aristotelis Topica et Sophistici Elench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Vergados, A., *A Commentary on The ‘Homeric Hymn to Hermes’*, Berlin: De Gruyter 2013.
- Winter, M., “Aristotle, *hōs epi to polu* relations, and a demonstrative science of ethics”. *Phronesis* Vol. 42, 1997, pp. 163-189.

〈Abstract〉

On the Lack of Persuasiveness
of the Apparent Enthymemes
– Illustrated by an Example
in Aristotle’s *Rhetoric* II.24 –

Hahn, Seokwhan

Just as in dialectics deduction is divided into dialectical and eristic, so in Aristotle’s *Rhetoric* deduction is divided into rhetorical and only apparent. The latter leads the hearer to a fallacy. In his *Rhetoric* II.24, Aristotle deals with the topics used in the only apparent deduction. In this article, I show why the apparent deduction is unconvincing by examining the one discussed in the last topos. This study also explains to a large extent where the persuasiveness of rhetorical deduction comes from.

Key Words : the Apparent Deduction, Endoxa, Fallacy, Persuasiveness,
Probability

이 논문은 2023년 10월 18일에 접수되어 12월 2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12월 3일에 게재 확정되었습니다.